



이誌石은 磁質이 나形體나 別로 優秀하지는 못하나 大接內面 中央部에 靑華로 草花文 비숫하게 그려 있고 그周圍에는 銘文이 縱書로서 打彫되어 있으며 그字劃만을 墨으로 메꾸어져 있다.

銘文에 依하면 折衝將軍(堂上官·正三品) 行龍驤衛副護

軍으로 지나던 林寬宜 夫婦墳誌石(貳個)이며 그 婦人 平山申氏는 壽二十八歲에 卒하여 乙亥純祖十五年(西紀一八一五年) 三月에 葬하였고 그後三十七年 辛亥(哲宗二年 西紀一八五一年) 閏八月에 林寬宜도 壽五十九歲에 卒하여 夫婦各葬으로 되었던 것을 그後十八年 戊辰(高宗五年 西紀一八六八年) 三月二十八日 江華 三海 五流川에 夫婦合葬한 것이며 이誌石은 合葬 當時인 高宗 五年(西紀一八六八年) 以前에 燒成된 것이다. 銘文은 다음과 같다.

其一、男子墳誌石 全高 八·二cm 徑 一七·八cm

折衝將軍行龍驤 衛副護軍林公之墓

諱寬宜字致弘癸丑 十一月初四日生卒于辛

亥潤八月二十四日亥時本 連山葬于江華三海

面五流川子坐之原 戊辰三月二十八日申時

下棺西山山南車山北 李山長子維恒次子

德恒長孫衡鎮次 孫華鎮曾孫福賢

其二、女子墳誌石 全高七·六cm 徑 十八·三cm

初娶淑夫人平山 申氏之墓(西三 月十五日生卒于乙亥三月十六日葬于 江華三海面五流川 子坐之原戊辰三月 二十八日申時下棺西 田山南車山北李山 長子維恒次子德 恒長孫衡鎮次孫 華鎮曾孫福賢

誌石은 大概 磁質板冊型으로 되어 靑華나 鐵砂等으로 銘文을 쓴 것이 보통인데 例外로 壺型誌石이나 大接型誌石은 磁器 또는 誌石 研究에 參考가 될 것이다.

入室驛의 陽刻 菩薩坐像

秦 弘 燮

東海南部線 入室驛構內에 높이 二二八cm 下幅八六cm 厚二二二cm의 板石 表面에 菩薩坐像이 陽刻된 石材가 保管되어 있다. 이 돌은 同驛 西쪽에 솟은 「애기봉산」에서 解放後에 移置한 것으로 同山은 大小의 岩石이 全山을 덮고 있는데 이 佛像을 移置해 온 驛員으로 부터 다른 圓刻石佛像이 있었으나 이미 盜去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 그 많은 岩石에서 아무 다른 彫刻도 發見하지 못했다.

이 佛像은 매우 弱한 레리-푸로서 像



高七二·五cm、頭高二〇cm、膝幅六二cm 頭光徑三五cm이다。像은斜光線을 받았을 때 大綱의 輪廓을 알아 볼 수 있을 程度이나 胸部 以上 特別顔面은 比較的 잘 保存 存되었다。陰刻한 同心圓 頭光을 三重으로 나타냈고 그 中心에 美麗한 頭部가 있다。鼻端에 若干의 損傷이 있으나 豊美한 兩頰과 가는 兩眼은 매우 아름다우며 特別精誠을 드러낸 口唇은 매우 柔美하다。頭部에는 三面花冠이 희미하게 보이며 寶髮의 有無는 確認하기 힘들다。比較的 좁은 어깨에 걸쳐 一條의 瓔珞이 가슴앞으로 늘어졌고 右手는 어깨까지 들어서 外掌하고 무엇인가 잡고 있는 듯하나 確實하지 않다。

左手는 膝上에 있는 듯하나 매우 희미하다。通肩인 듯한 衣紋이 胸前에 보일 뿐 膝部에 이르러서는 매우 磨損되어 알아 볼 수 없다。

臺座는 向右側에 數條의 蓮瓣인 듯한 線이 보일 뿐이다。비록 大作은 아니고 下半部가 磨滅되었다 하나 上半身은 매우 優雅하며 顔面은 特別 美麗하다。原在地인 「애기봉산」에는 작은 庵宇나 마들 어실만한 適當한 자리가 없으나 돌을 보고는 정을 안들 수 없는 新羅人의 氣魄을 느끼는 것 같다。 그 製作은 八世紀以下로 떨어져지 않을 듯 하며 盜失된 佛像이 發見되어야 할 것이고 좀더 細密한 調査가 있으면 새로운 佛像의 發見도 可能할 듯하다。

驪州 下里三層塔 및

倉里三層塔의 內部裝置

尹 武 炳

우리나라 石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舍利裝置法은 大개 初層 塔身石의 上面에 適當한 크기의 구멍(方孔 또는 圓孔)을 파고 거기에 安置하는 수가 많다。 때로는 二層이나 또는 三層 以上의 塔身石 或은 그들 屋蓋石 中の 하나에 그와 같이 구멍을 파고 安置하는 법도 있으나 大개 石塔의 경우에 있어서는 初層 塔身石에 판 구멍에 舍利를 裝置하는 例가 제일

많은 것 같다。 여기에 말하는 驪州 下里 및 倉里 所在 三層 石塔 二基도 역시 初層 塔身石 上面에 있었으나 그 構造에 特異한 點이 있었으므로 다음에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 이 두 石塔은 一九五八年十一月末에 원래 있던 자리에 서 西쪽 江邊에 位置한 迎月樓 下에 移建되었으므로 지금은 한 자리에 나란히 서 있다。

먼저 下里 三層塔의 裝置에 對하여 말한다면 이는 보통 舍利孔과는 正反對로 塔身石의 上面中央에 方形二層級의 突起來 새겨져 마치 어떤 물건을 놓기 위한 받침臺처럼 만들고 있었다。 그 部分의 치수에 對하여서는 圖面에 記入해 두었으나 이 初層 塔身石의 크기는 一邊이 二·四五尺、높이는 一一·五尺이었다。 方形 突起의 上面에는 前後로 작은 圓孔 두 個를 봤는데 앞쪽에 位置한 하나는 徑一寸、또 하나는 五分 程度의 크기였으며 앞 것은 바닥을 判관하게 만들고 있었다。 여기에 어떤 信仰의 對象을 安置하였는지 이미 內容을 喪失한 오늘날에 와서는 알 道理 없으나 바닥이 判관한 쪽에는 比等한 徑의 臺座를 가진 小佛像을 세워 놓았던 것이 아닐까 推測된다。 이 方形의 突起部分 바로 위에 該當하는 屋蓋石 裏面에는 約 四寸 깊이의 凹孔을 파고 뚜껑 모양으로 덮어 씨울 수 있게 하고 있었다。

倉里 三層塔은 基壇이 座臺形式을 이루고 있어서 高麗時代에 屬함이 分明한 石塔이지만 初層 塔身石의 上面에 판 舍利孔은 五·五寸×三·三寸의 크기에 깊이 一寸 前後의 매우 얇은 구멍이었다。 이 네모난 구멍에도 그 바닥 南邊中央에 徑一寸 가량 되는 小圓孔을 한 層 깊게 파 놓았으나 어떤 必要에서 마련된 裝置인지 역시 理解하기 어려웠다。 이 塔身石 위에 있는 屋蓋石 裏面은 약간 凹面을 이루고 있었으나 特別히

